

연중 제28주일

기도서 454 면 (C해)

제1독서: 열왕 하 5, 14-17

제2독서: 디모 후 2, 8-13

복음: 루 가 17, 11-19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천주께 감사』

김 봉 희 신부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가을 산하(山河), 물결 춤추는 대풍(大豊)의 들녘엔 지난 주말 갑자기 황금연휴 인파로 오색꽃이 가득히 만발했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ASTA) 와서 보고 놀랐다는 우리나라 인구밀도가 유난히 높은 것도 어쩌면 이 나라가 온통 이렇게 명산청하(名山淸河)대 관광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시사철 아름답고 기후 좋은건 물론 물 맛 좋고 깨끗하기론 세계에서 네번째라니 어깨가 으쓱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천혜 관광자원으로 가득찬 나라도 세상에 드문 것 같다. 가끔 중동이나 아프리카, 월남은 물론이고 서양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우리의 자연 환경을 극구 자랑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좋은 낙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처 그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덤덤히 살고 있듯이.

더우기 금년엔 유래 없는 대풍이라고 흥겨워 하면서도 정작 그 은공을 인간에게만 돌리고 하늘엔 감사할줄조차 모르고 있다. 따스한 햇볕과 비, 바람을 고루 쏟아 단상을 살찌우게 하셨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라면 어이 더한 축복 또 바랄 수 있을지... "뿌리 없는 나무에 잎이 필리 없듯" 이리 감사 머금지 못하는 우리네 신심에 무슨 신앙꽃 열기를 기대하겠는가?

신앙은 감사로 싹트고 그 감사와 찬미 속에 돈독해지며, 그로써 은총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오늘 성서에서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의 감사에서 비롯한 굳은 신앙과, 구원 주신 하느님께 대한 두터운 감사의 믿음으로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도 '바울로'의 모범을 배워야 한다. 또한 지겨운 나병으로부터 소생의 은혜를 입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 '사마리아인'의 신앙태도를 익히 본받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나병보다도 더욱 끔찍한 병을 앓고 있던 죄의 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시 자비로 타락의 밑바닥을 헤매던 우리 죄악을 씻으시고 용서를 베푸시어 당신 자녀, 제자로까지 받아주시지 않으셨는가. 썩어가는 자신을 재생케 신앙의 축복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도 이 생을 지켜주시고 또 기다려 탕자의 회두를 맞아주시는 주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리자.

쾌청한 가을 · 봄, 찌푸린 겨울 · 여름에도 번갈아 새 생을 맛보게 하시는 창조주 하느님, 천주께 감사를...? (덕진 주임신부)



## 장하다 복자여!

이 땅에서 순교한 103위 복자들이 성인품에 오른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는 참으로 경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국 천주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민족의 기쁨이 되기도 남는 일이다. 어쩌면 한국 천주교회가 성인품에 오르는, 가슴 벅찬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성식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뭇가지 다짐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첫째는 감사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킨 하느님은, 우리 선조들의 순교에 승리의 관을 주신 것이니, 이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것인가.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수범을 보이신 순교 선조들께 감사드려야 한다. 아울러 순교 선조들의 신앙심을 살펴 재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우리의 유형 무형의 순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무명 순교 선조들의 시복 시성에 열성을 다하는 일이다. 103위 말고도 신앙의 수범을 보이신 순교 선조가 얼마나 많은가. 유 요한과 이 누갈다 동정부부만해도 아직 복자위에 오르지 못한 실정임을 보아서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아기 예수를 대신한 무죄한 어린이들의 피흐름이 있었듯이,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들의 피흐름도 있다. 이를 헛되어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끝으로 제사문제에 대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의 판단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바른 인도가 항상 머물도록 기도해야 한다. 역사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무고한 희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

## 숲 정 이 산책



# 순 교 자 의 기 도

## 박 분 도(창순)

소슬한 가을 바람에 별이 익고  
 퇴색해버린 지혜 위안  
 망각의 나래가 펼쳐지고  
 은하수를 넘나드는 조각배에는  
 한 많은 순교의 사연들이  
 가득 실려 있다.

서리먹은 서녘의 하늘에는  
 달이 텅쫄고  
 외로운 소년의 그림자의 호느낌을 따라  
 멀리서는 태산이 울리는 듯  
 기러기의 실을을 따라서  
 가을의 미아가 되어버린  
 시인의 애처로운 시마냥  
 순교자의 기도가 들린다.

주여!  
 저를 받아주소서  
 이 영혼 당신께로 가옵니다.  
 아무리 화려한 빛깔의  
 불새라 하더라도  
 가시덤불을 벗어나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당신의 품안에  
 이 영혼 고이 받아주소서.

이 영혼  
 추풍에 호느적거리는  
 한 송이 코스모스 같으니  
 파아란 가을 하늘을 머리에 인  
 진홍색 사루비아 한 송이가 되렵니다  
 저의 영혼 이 땅에  
 한 송이의 진홍색 사루비아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가을의 사루비아는 퇴색할지라도  
 가냘픈 이 영혼  
 가을 한철 분분히 떨어지는 낙엽처럼  
 순교의 칼 아래 스러져도  
 영원히 퇴색치 않을  
 진홍색 사루비아 한 송이로  
 아름답게 승화케 하여 주소서  
 주여!!  
 오! 나의 주여!!!

(남원 천주교회)

포기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인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한 권의 책이라도 가까이 하  
 여 나를 가다듬을 생각을 실천해 보도록 해야겠다.

# 가을이 깊어가면서

봄에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은 여름을 거처오는 동안 쉽  
 없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물라보게 성숙하고 가을이 되면  
 머리 숙여 낱알을 맺는다.

인간의 삶도 40을 바라보면 성숙기를 거쳐 완숙의 단  
 계를 조금씩 내 비치게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40을 넘긴  
 사람은 자기의 인상(얼굴 모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 보기  
 싫은 곳이 노출되면 당황하게 되지만 분위기에서 불  
 켜 쫓기는 인상을 어찌지 못한다. 교육자는 교육자로  
 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그가 누구  
 이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건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배어나오는 고결한 교유의 체취이다.  
 이는 각자에 있어 가장 값있는 보물인 것이다. 이것이  
 다종다양한 수십억의 인간들 중에서 내가 지닌 독자성이  
 며 존엄이요, 동시에 이웃들의 독자성이요 존엄함이다.

얼마전 KBS-1TV 전파를 뒀던 키에프의 신화라  
 는 영화가, 그 주인공을 통해 초인적 인내와 끈기로 버티  
 끝내 잃지 않았던 인간의 진실함을 감명깊게 보여주었  
 다. 쏘련에 이주해 살고 있는 유대인 야콥은 36세 가량  
 의 목수였다. 그는 거친 노동을 하면서도 밤에는 호롱불  
 을 밝혀 스피노자의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곤 한  
 다. 그를 유혹하려던 집주인의 딸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를 강간 혐의로 고발하고, 그로 인해 부정을 하지 못했  
 던 동료들로부터도 소년 살해범, 유대교 신봉자, 반정부  
 주의의 수장적인 인물로 고발 당한다. 그는 끝까지 이  
 모든 죄목들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 폭행, 계략, 인간 이하의 대우, 몸 수색의 수치,  
 정신적 압박 등 모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도 쏘련은 그  
 에게서 자백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천부적 그의 인내  
 로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정신이상에 걸리지도 않는다.  
 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가도 그의 기백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하게  
 되는 전딜 수 없는 수치를 동반하는 몸수색이라는 묘한  
 심리적 고문에서 그는 외친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  
 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는 수없이 되풀이 하여 되풀  
 이한다. 자신 안에서 말살되어 가는 인간성을 지키려는 듯  
 이 자신에게, 그들에게 외친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  
 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는 끝내 그 무시무시한 악마의  
 소굴 쏘련 정부의 감방으로부터 무죄인의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소로 향한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댓가로 그  
 가 당한 형벌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할만한 것이지만, 진  
 실한 인간성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있는 것  
 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 각자는 어떤가. 남이 나에게 빼앗아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게으름과 안일 속에 나를 잃어버려 가고 있지  
 는 않는지? 인간이란 본능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  
 색하며 사는 존재가 아닐까? 인간이 완숙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의 사고가, 인격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대단한 철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각  
 자가 자기의 삶에 성실하고 부단히 전진하려는 노력을

가을맞이 관광  
 (설악산·제주도)  
**전 일 관광**  
 ☎ 6-6666~8  
 조(안토니오) 선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주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 크 앤 드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AN  
 주 니 어 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 4451  
 주인 윌리안나

□83년 신앙대회 주교님 강론

# 우리 교구의 천상 수호자를 모시며

친애하는 전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요, 이 고장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우리의 조상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 굳건하고 갈림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것을 다 함께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하느님을 믿다가 용감히 목숨을 바쳐 순교하신 일곱 분의 복자님들을 우리 교구의 주보로 모시는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7위 복자를 우리 교구의 천상 수호자와 전구자로 모시면서 그 모범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을 결심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는 순교자들이 어떤 분이며 어떤 면에서 그분들을 본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본래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은 보통 말과 생활로써 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목숨을 바침으로써 할 때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재갈과 벼슬자리를 박탈당하고 온갖 형벌과 고통을 감수했을 뿐 아니라 하나 밖에 없는 목숨까지 하느님께 바친 분들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용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순교자들을 증거자 중의 증거자로 높이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교구에는 이러한 순교자들이 타지역에 비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유요한, 이 누갈다 동정부부 치명자와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지중 바오로와 최연소 순교자 이 봉금 야남다시아 등 훌륭한 특색있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랑이요, 전주교구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고통중에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는 용감하게 피로써 하느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훌륭한 조상들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훌륭한 조상들을 잘 공경하는 길은 우리가 그분들의 뜻과 모범을 따라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살고 가신 축복 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정신으로 이 고장에 살며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옛날과 같은 무서운 직접 박해는 없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같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야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느

님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신앙의 표현마저 금하는 무섭고 처참한 박해가 있었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신앙의 진리를 사회 안에 구현하려는 교회의 활동을 막는 지능적이고 간접적인 박해가 가끔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종교자유를 표방하는 많은 국가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대적 종교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증거생활에도 무서움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기 위한 용기뿐 아니라 인내와 슬기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위에서 말한 직접, 간접적인 종교박해 외에도 우리의 증거생활을 어렵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에 위배되는 현대사조와 생활태도들입니다. 예를들면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배금사상과 쾌락주의, 자유주의 사상과 권력에 대한 갈증, 개인주의 사상과 가속화되는 비인간화 현상 등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러한 허황된 것들을 멀리하고 복음정신 특히 참된 행복(마태 5, 2-12)의 가르침에 투철해야만 하느님의 증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나약합니다. 믿음의 불꽃이 약할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세적 동기의 불순한 믿음은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이야말로 순수하고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7만 우리 교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같은 믿음과 세례로 하느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며 이 고장 순교 복자들을 주보로 모시고 한 교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구민 전체가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치의 성사"(전례헌장 26)이며 분열된 교회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끝으로 교구의 주보 7위 복자와 이 고장 순교자들에 대한 신심을 돈독히 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자랑스럽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정성껏 그분들을 찬양하고 온 세계에 현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로 결심합시다. 자녀다운 정성으로 우리 교구의 천상수호자요 전구자들인 7위 복자들에게 교구를 위하여 그 전구하심을 열심히 구하도록 합시다.

### □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안내

—형제들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내 쇼 날 항공

전북지구 주재원 이 은 자(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01(가톨릭센터 후문)

전화 ① 2502 • ③ 4471

###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스템의

협상 인화기 신설

### 미영칼라현상소

☎ ② 3651 • 9286

전주시 중양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4) 순 정 이

□ 피정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친 바자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종일관 협력해주신 본당 신부님, 수녀님, 신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자회를 앞선해주신 이 엘리사벳 자매님과 협력해주신 꼬미씨음당장님 및 전주 시내 레지오 단원(연인원 750명) 여러분, 협조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행운권 당첨 발표

1 등(오토바이)	10303						
2 등(칼라TV)	14638						
3 등(세탁기)	4874	11702					
4 등(자전거)	6060	7760	19201				
5 등(우산)	186	690	1145	1599	1870	2246	
	2259	2332	2602	3088	3565	4278	4340
	4626	4961	5101	5112	5360	5457	5514
	5535	5570	5921	6012	6203	6504	6930
	7075	7076	7426	7519	7713	7790	7908
	7998	8158	8449	10127	10427	10436	10480
	11076	11097	11782	12332	14118	14295	14546
	15347	15348	15622	15840	16163	16164	16273
	16314	17429	17475	18570	18607	18664	18756
	18887	19250	19270	19763	19923	19958	20347
6 등(벵타이 고리, 세수비누)	59	74	276	302	530		
	551	627	686	688	1224	1226	1358
	1451	1553	2042	2399	2607	2639	2679
	3025	3056	3070	3522	4280	4567	4602
	4624	4682	4712	4864	4878	5241	5384
	5530	5546	5547	5606	5880	5992	6025
	6666	6686	6741	6780	6850	6863	6885
	6936	7044	7078	7271	7283	7385	7553
	7719	7804	7820	7829	7882	7943	8432
	8452	8453	8456	8606	8650	8937	9072
	9356	9409	9458	10810	10816	11052	11087
	11440	11453	11756	11774	12361	12362	12392
	12609	12624	12653	12663	14123	14157	14236
	14349	14569	14600	14623	15271	15344	15589
	15624	15643	15658	15741	15817	15852	16319
	16331	16467	16516	16604	16618	16640	16726
	16957	16976	17311	17363	17413	17468	17496
	17652	18306	18319	18323	18326	18414	18443
	18513	18517	18525	18539	18540	18548	18556
	18568	18797	18879	19257	19344	19346	19399
	19400	19458	19471	19512	19713	19814	19841
	19944	20146	20205	11703			

상품 교환일: 1983. 10. 15일까지  
 상품 교환장소: 가톨릭 센터 관리과  
 바자회 및 행운권 판매현황 총수입: 13,719,720원  
 총지출: 3,383,710원 잔액: 10,336,010원  
 전주교 200주년 기념사업 전주교구 위원회  
 기념사업 분과위원장 황 인 규 신부

□ 선교용 책자  
“이 땅에 빛을” 배포

교구 홍보국에서는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에서 발간한 “이 땅에 빛을”이라는 책을 도내 각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자는 천주교를 모르는 비신자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와 같은 선교용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공공 장소에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200주년 기념 홍보용  
“이 땅에 빛을” 영화상영 안내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사무처에서 제작한 “이 땅에 빛을”이라는 제목의 영화 필름이 홍보국에 입수되었습니다. 200주년 기념 정신과 그 의의를 일깨워 주고 한국교회사와 한국 각지의 성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현황을 담고 있는 이 필름은 총천연색으로 상영시간은 약 50분입니다.

모든 본당, 공소, 기관에서 볼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신청하실 곳은 교구청 홍보국입니다. 대여비는 없으나 여비는 상영하는 곳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 필름만도 대여해 드립니다. 주제가를 원하시는 분은 빈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 오시면 홍보국에서 복사해드립니다.)

□ 한국 순교복자 103위 성인품에

로마 교황청은 9월 27일 한국 순교복자 103위 전월을 성인품에 올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2백년 교회 역사상 첫 성인을 모시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성황리에 끝나다

200주년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사순절부터 지난 9월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까지 계속되었던 각 본당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는 성황리에 끝나쳐졌다.

기도회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모든 본당 신부님들과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차량을 내어주신 복자성당과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유동열(스떼파노) 형제께 심심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기도회 현금을 내어주지 않으신 본당은 속히 교구청으로 보내주세요.)

마시니 시원하기 마치고 안개를 머금은 듯하다.  
-정다산-

전통 녹차와 생활 다기의 집

작 설 다 원  
전 북 다 혜 원

茶道 강습 수강생 모집. 茶생활 상담  
조 윤 수(아나스타시아) ☎ 7541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교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베드로) 정 두

□ 신장개업  
대 건 다 방

개업일: 8월 28일  
전동 대건신협 지하  
☎ 6-4455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김 유리안나(춘형)

## 유항검의 묘소는 어디쯤 있을까

홍수에 씻긴 폐허처럼 호남의 사도 유항검의 가문은 그렇게 혼적(混跡)이 없다. 그런데 1909년 참회한 일이 생겼으니 유항검의 사촌 후손이요, 증손자 뻘이 된다는 유길로(吉老)가 돌연 나타나서 정부에 적몰된 농토를 환출받으려고 운동하였다. 앞서서 정부는 1907년 유항검의 죄목을 벗겨 주고, 몰수한 재산은 돌려 주도록 칙조(勅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난과 무지로 유리걸식하던 그에게 소식이 전달될리 없고 그가 나신 때는 뒤늦은 일이었다. 그는 재산을 환급받으려 하나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되자 협조자를 구할 양으로 동학군에게 접촉도 해보았고, 일진회에 의지해 보았지만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진동 분당 보두네 윤신부였다. 윤신부가 정부기관에 진정하여 일이 진행되는가 했는데 1910년 한일합방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만난 유항검의 혈육이 교회와 끊기게 되었다.

그러면 유항검 가족의 유해는 어떻게 관리되었을까? 도대체 그의 가족 6명이 치명자산으로 옮겨진 때는 언제이며 왜 그곳에 모셔졌는지 이론도 구구하고 종잡을 수 없게 어지럽고, 잘못 관리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1909년 정부에 제출된 진정서나, 윤신부와 구신부를 전동성당에서 모시고 산이덕회(베로니카)가 1956년 김발도로메오 주교에게 말한 증언이나, 교(敎)송 남호신부의 증언에는 모두 "7인 무덤"으로 말한다. 그러나 치명자산으로 이장 당시 목도한 증인의 말을 빌려(누구인지는 밝혀 있지 않지만) 「호남발전사」에서는 8인이 묻혀 있었고 치명자산으로 이장된 분은 유항검과 유관검 형제를 제외한 6명이라고 한다. 그들의 묘는 어디 있었는가. 유항검의 유신부 보고서를 보면 전주에서 제남리 공소를 갈 때마다 그 무덤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한다. (1909년 보고서) 이것은 제남리가 고향인 송신부의 증언과 일치한다. 유항검 가족의 묘는 초남마을에 있는게 아니라 제남리와 바위백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주민들의 증언에도 초남부락에는 유항검 집안의 묘들이 여러 곳에 있고 바위백이에도 있다는 것이다. 초라하게 가매장된 이들이 치명자산에 모셔진 처량한 이유를 송남호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한일합방 후 일본인 기바(木場)가 그 땅을 과수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소문에 서두른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유항검과 관검 형제는 배교자로 취급되어 그곳에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모두가 민족의 아픔이었다. 그러면 언제 치명자산으로

로 옮겨졌나.

이덕회는 1912년 봉제 때였다고 말하며 이것은 송신부의 증언과 일치한다. 송신부(1904년생)가 9세(1912년) 되던 어느 초여름 주일 날 구신부(?)가 김도마복사·김지완·박군명·이회장 등과 일꾼 2명을 얻어 파묘하였다는 것이다. 이장한 사람들의 말로는 파묘하니 물이 고여 있었고 두개골만이 있으며, 만지면 부서지는 상태였지만 목탄이 담겨진 백사발에 각각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유해는 산에 반장할 때까지 몰약 3사발 들이 옹기 단지에 각자의 묘표를 넣어 봉해서 성당 대청에 모셨는데 그것은 지금의 성당이 공사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이장한 연대의 구구한 전설을 바로잡는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면 왜 이곳으로 모셔졌는가?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뜻은 참배객의 편의보다, 그 정신을 높이 기리고, 사업적인 관심보다 순교정신을 교육하는, 현장 교육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신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동정부부의 신심과, 호남 교회의 밑알이 된 유항검 가족의 장엄한 정신이 드높이 추앙받기에 어울리는 장소였다. 동정부부의 삶과 정신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 보며 지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산정(山頂)은 당연한 장소였다. 이산정의 묘소는 순교정신을 몸으로 생각하며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비할데 없는 명소(名所)이다. 산정의 참배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감있게 기도하는 것이다.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걸다하는 신앙생활과, 안일무사한 자기 생활을 극복하고 인간 본능을 자제하는 노력은 땀흘려 이루어져야 한다고 묵상시켜 준다. 그래서 이산을 마련한 윤신부는 겸손하게 그 산발아래에 돌기를 원하였다. 이리하여 치명자산을 찾는 이는 겸손을 배우고 있다.


이산의 맨 첫번 관리인은 전동성당이였다. 그들이 마련하여 모셨고 그래서 1922년 구신부는 이묘소의 조경을 걱정하는 문서를 남겼다. (1922년 7월 22일자 무덤 문서) 그 후 전동 성모회는 1949년 화강암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70일간의 공정으로 묘지의 축대를 쌓게 되었다. 공사를 마치고 순교기념 십자가의 제막식이 거행된 것은 1949년 7월 17일의 일이다.

우리의 넋리에서 맑게 잊혀진 유항검의 묘소는 후손들이 찾아 줄 날을 겸손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바위백이 어딘가에는 분명 있을테니 말이다.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등)  
친절 상담 봉사  
열가 판매 조제

**군산 태광 약국**  
구시장 오거리 ①1800  
이루도비포(원식)  
최테레사(순정)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3032  
윤(베드로)종순

군산  
**짜즈·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군산 동국교 옆,  
동아약방 뒤편  
☎ ①610  
이크리스티나(정란)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일싱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싱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0841 야간 ①9874  
박안당(윤규)

# 7위 복자의 묘소는 어디쯤일까

숲정이 숲 속에서 상서로운 까치가 울었다. 병인 박해에 치명하신 7분의 복자들이 내년에는 성인 위에 오르신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치명하신 후 11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분묘를 수호하지 못한 채 소재가 묘현한 분들이 있다. 그런데도 조상 자랑으로 사는, 몰락한 양반의 후예처럼 즐겨 순교 정신을 말하고 있으니 부끄러움뿐이다.

병인 순교자 시복 조사는 1899년 6월 19일에 시작하여 1900년 11월 30일에 끝났고 전주교구에서는 7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20명의 증인이 동원되었다. 이 조서는 135차의 회의를 거쳐 1901년 교황청 예부성성으로 보내졌다. 교황청은 시복 예정자들의 분묘 조사를 지시하여 한국은 1922년에서 1923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전주교구는 1923년 6월부터 8월까지 분묘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안타까움 뿐이다. 그때 교회가 좀더 충실하게 착수했으면, 사복자가 자기의 편견을 고집하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불행은 막았을텐데.

여기서 먼저 따지고 갈 일은 복자 조 윤호(요셉)가 치명한 장소와, 그 후 가매장 된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조 윤호는 복자 조 화서의 아들로, 함께 체포되었으나 그 시대의 관례에 따라 부자를 한 장소에서 같은 칼에 처형하지 않았다. 그래서 5일 후인 11월 12일(12월 18일) 서문 장날 서천교 밑에서 장하지명하였고 시체는 용머리고개에 가매장되었다가 그 후 완주군 소양면 유상리 막고개에 있는 아버지 묘소 곁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치명 일기」와 「한국 신앙의 씨앗들」에서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다. 1923년 병인 순교자 분묘 조사시에 방문한 곳은 ①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천호). ② 완주군 소양면 유상리 막고개. ③ 진안군 어은동 모시골이었다. 이 조사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외교인으로 순교자의 유해를 건우어 주었던 오 사현과, 아버지의 유해를 반장한 손 선지의 아들 손 순화(요한)와 이 명서의 손자 이 아나들의 증언이다.

6명의 복자가 숲정에서 치명하자 오 사현은 이들의 시체를 걸우어 치명장 옆 전주천을 건너 부용바위(지금의 진복사) 밑으로 묻었다. 거기서 제 갈 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즉 이분들이 가매장되었던 곳은 용머리고개가 아니었다.

다리실(천호) : 손 선지의 아들 손 요한은 1867년 정월 그믐날 정 문호, 한 원서의 유족들과 함께 세 시체를 반장하려고 야음을 타서 현장으로 갔다. 그러나 관원들에게 발각될까봐 도저히 불가능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깔리더니 이상한 붉은 빛이 무덤 위를 비추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유해를 염습하여 위험한 지경을 벗어나자 안개는 멀쩡하게 걷혔다. 그들이 함께 이장한 것은 한동네 출신인 연고이다. 손 선지는 다리실에 장자가 반장하고 정 문호와 한 원서는 천호 건너편 시목동으로 가족이 반장하였으나, 그후 손 선지가 묻힌 다리실로 이장하였다. 그것은 1923년 6월 11일 분묘 조사단이 작성한 조사서에 정 문호와 한 원서의 무덤이 손 선지 무덤 옆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때 작성한 순교자 묘 위치도에 따라 1983년 5월 두 분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막고개 : 소양면 유상리 후쪽의 막고개는 천주교 신자들 소유라고 하는 전설도 있는데 우리의 은인 오 사현이 1867년 2월 초, 정 원서·이 명서·조 화서의 시체를 가족과 한가지로 이장하였는데 그것은 한동네 출신을 한 곳으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막고개는 성지동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서천교에서 치명한 조 윤호의 유해는 그 후 막고개 아버지 화서의 곁으로 옮겨졌다. 이런 사실은 1923년 7월 30일 분묘 조사단이 작성한 분묘 위치도에 표시된 4개의 분묘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명서는 손자 이 아나들이 1920년 3월 22일 어은동 모시골로 옮겨져 빈 분묘로 표시되어 있고 역시 다른 무덤도 이미 면제되어 있는데 아마 정 원지의 것으로 여겨진다. 남은 두 개의 분묘가 상·하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조 화서·조 윤호 부자의 묘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제 막고개에는 분묘가 없이 밭 뿐이다. 현대 성지동에는 관심을 끄는 한 개의 분묘가 있으며 1964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 운서(요한) 회장은 평소 이 묘를 성인묘라고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성지동은 막고개에 묻힌 분들이 살던 동네이니 지나칠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바로잡은 내용은 조 윤호 복자의 처형장이 서천교 다리밑이라는 것, 6분의 복자들이 처형 후 가매장된 곳은 용머리 고개가 아니라 전주천 건너 부용바위 밑이었다는 것, 6분의 유해가 반장될 때 한동네 출신끼리 따로 모셔졌고, 대성동 신리골 출신은 치명한 이듬해 정월 그믐 천호산 방향으로, 성지동 출신은 2월 초순에 출신 동네 인접산인 막고개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확인된 묘지는 천호동은 손 선지·정 문호·한 원서이고, 어은동 모시골은 이 명서로 모두 4분의 묘소가 확인된 셈이다. 막고개에 남아있다면 조 윤호·조 화서 부자일 것이 고 소리없이 면제된 한 기는 정 원지일 가능성이 큰데 전설에는 다리실(천호)에 묻혔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일이고 성지동의 성인묘가 궁금하기만 하다. 유해 순회기도는 하면서도 발굴 작업에는 의면하는 자세는 무인 일일까?

□마춤 · 대며□

##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비디오촬영·패백의상·신부부케·야외촬영

판릉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 인 기(부저3)

<정성과 봉사>

## 금 진 당

금, 은, 보석, 시계

전주백화점 1층 52호

☎ ⑤ 5506

정 는 지 노

## 장례 수의 쉼타

(한복전문)

신자들의 많은 이용 바람

연락처 ⑩ 9193

⑩ 0915

주-배 바울라(망녀)

## 가나혼인(結婚) 상 담 소

(관려 제13호)

◇연락처

☎ 72-3925(성모병원3층)

☎ 72-3105(천사의 집)

상담자 : 김 모 세



## □ 교구 사제 연례 피정

교구는 금년도 교구 신부님들의 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본당에 신부님이 안계시는 동안 필요한 사항은 교구청과 연락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다음 유의사항을 잘 참조하시기 바란다.

일 시 : 10월 10일(월) 오후 5시~10월 14일(금) 오후 3시

장 소 : 부산 성분도 명상의 집

부산시 동래구 오륜동 135-1, 전화(56) 4573, (56) 8351

사제 피정기간중 각 본당 유의사항

- ① 피정기간 동안 각 본당에서는 가능한 한 미사대신 말씀의 전례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미사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사제들이 피정기간 중에 봉헌해 드릴 것입니다.
- ③ 긴급한 병자성사나 장례미사 등은 교구청을 통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피정기간 동안 사제들을 위하여 교우들의 많은 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지체 장애자를 위한 첫모임 안내

오랜 숙원이던 모임이 싹 터 옵니다. 몇 분 장애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시작되는 이 모임에 교구 사회복지 사목부는 그들의 팔,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고뇌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초대 드리는 이 모임에 장애자뿐 아니라 이 사업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일시 : 1983년 10월 16일(일) 오후 2시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타 교육관

주 제 : 하느님의 사랑

① 미사봉헌 - 유 장훈 신부(사목국장)

② 강 의 - 성 라자로 수사님(광주 사랑의 선교회) ③ 대화시간

주관 및 연락처 :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목부 사회복지 사목부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달이다. 교황 레오 13세께서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제정한 후로는 매년 이 달에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열심히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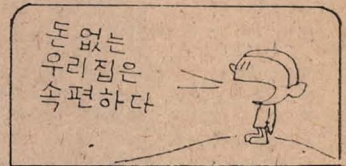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실기도 중에 이 기도만큼 보편성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 이 기도는 성직자나 수도자나 평신도는 물론이며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차별없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다.

교회의 오랜 전통을 통해 모든 교우들의 신앙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이 기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하여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마치 이 기도가 이미 낡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현대의 감각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도 높은 영성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바치고 있으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그들 신앙생활의 중심점을 이루고 있는 기도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로사리오 기도는 더 더욱 필요하지 모른다. 이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줄 것이다. 한가정이 묵주의 기도를 함께 할 때 그 기도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의 피로를 덜어주며, 가족들 간에 놀라운 일치력을 가져올 것이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을 보내면서 묵주기도로써 우리의 기도생활을 보다 살찌우도록 해야 되겠다.

## 요심이(531) 김병오



## 직 원 모 집

본 가톨릭 센타는 참신하고 성실한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여성 직원을 모집한다.

1. 모집인원 : 0명
2. 응모자격 : 학력 제한없이 천주교 신자로서 성실한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본인 직접 제출)
4. 제출마감 : 1983. 10. 12  
자세한 내용은 00041 관리과로 직접 문의 바람.

재단법인 전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가톨릭 센타

관리국장 강인찬 신부

각종 암, 간질환, 위장병 등

공급소 :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 72-3925

제초처 : 왜관 수도원농장

전화 02625~6

자연식연구소전북총판

1톤 이삿짐 및 소화물운송  
주·야간 호출 운행

다가용달사

국가유공자 우대시책에 따라 용달업 신규면허를 얻어 지난 8월 20일 개업

☎ 6-6565 2-9908

위치 : 다가동 황의과에서 완산교 중간

대표 : 유 남 기  
상무 : 박대규 (발라바)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레사(금순)

☎ 49206 · 35289

- 혼수(회갑) 옷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침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 커벤지 |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축! 겸직: 오통동 본당(9일)

1. 교구 사제 연례 피정: 10일~14일, 장소-부산-명상의 집
2. 제1회 가나안작 개최: 22일 오후 7시~9시, 대상-미혼 남·여(기혼자 포함), 3천원, '문의-교육국'
3. 가정법원 개원일: 24일 오전, 장소-교구청
4. 200주년 기념 제4차 사목회의: 25일, 장소-가톨릭 센터
5. 평택 임원 연수회 및 임시총회: 29일 오후 4시~30일 오후 4시, 참가대상-①본당 사도회대표 2명, ②교구 단위 사도적 단체 대표 2명, ③위 대표들의 부인 연수회 강사-이 병호 신부(광주 대건신대), 한 용희 교수(숙명여대)

□ 축! 영명: 성 갈리스토(14일) -정 태현 신부님

(중앙)

전화 ②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인
사도 회장	김인협

1. 미사전 묵주기도: 성정신축과 가정성화를 위해
  2. 사제 피정: 10~14일, 미사지향 신청 받습니다
  3. 신축성당 미사: 매주 저녁 8시
  4. 청년성가대 피정: 9일, 장소-여산
  5. 안드레아반·복자반 첫고백: 15일 오후 7시 미사후
  6. 초정강연회: 18일 오후 8시  
주제-나는 분명히 말한다, 강사-최기석 신부님
  7. 꾸리아 릴레회: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900,542원    교무금: 738,000원  
감사헌금: (영세) 김경옥·은윤정(30,000원)

(노송동)

신부 ②0969    주임 신부 김태성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나윤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신부님들 피정: 10일~14일까지, 많은 기도 바람 피정기간에는 미사없이 말씀의 전례로 대신합니다
2. 새 성전 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위원장-사도회장, 부위원장-노인석·이당재, (원추추진위원회의 4개 부서 결성) ①건축설계위원회, ②건축재정위원회, ③행사준비위원회 ④비품 및 설비위원회 (오늘 공식 미사 후에 본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3. 감사드립니다: 본당의 날 행사에 협조해 주신 중앙여교·신협, 식사준비 해주신 분들과 그의 여러분들
4.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5. 형제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예비자 모집: 16일까지, 아파트 19일까지  
교무금: 289,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동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L.M 꾸리아 회의: 오늘 오후 2시
  2. 사제피정: 10~14일, 부산 명상의 집  
이 기간중 저녁미사만 있음(보좌신부님 찬유)
  3. 유아세례(보례): 16일 오후 4시  
대부·모 함께 참석, 3시까지 접수
  4. 예비자 교리반 모집: 18일 개강, 수녀님 지도  
화요일 오전 9시-할머니반·오전 10시-주부반, 금요일 오후 8시-부녀 및 일반
  6. 진복지(분당 월보): 후원 독지가 구함(월 5만원)  
광고료 형식으로 지원하실 수 있음
  7. 다음주일 모임: 반석회·청년연합회·성도회
  8. 성지순례단 모집: 25일, 접수 사무실, 성도회 주관
- 지난주 봉헌금: 368,180원    교무금: 500,5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권영표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부녀회 자모회: 10일 어머니미사 후
  3. 검진신청: 10일까지
  4. 본당 대피정: 견진반을 분은 꼭 참석할 것  
일시-11일~13일 저녁 7시30분(3일간), 강사-이태구 선생(서울에서 초빙)
  5. 수녀원 신축헌금: 장동주-15만원, 익명-2만원, 박누시아-1만5천원, 김준례-5천원, 누제-6,158,500
  6. 레지오 단원들 신협 교육: 10일-사도의 모후·평화의 모후·사랑하신 어머니·죄인의 의탁, 11일-계약의 례·다위의 탑, 13일-순결하신 어머니·구세주의 모친·자비의 모후, 14일-셋별·황금중전
  7. 봉헌금 미수 완반 바람
  8.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유기순 ②이상원  
차주전례: 해설-이명태, 독서-①강기연 ②김성원
- 지난주 봉헌금: 566,090원    군인주일 헌금: 74,6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함형수

1. 사제피정: 10일~14일까지, 본당미사없음
  2.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7시로, 다음주일부터
  3. 반장님 릴레회: 공식미사 후
  4. 할머니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성심부녀회: 13일 오후 2시
  6. 울드레야: 11일 저녁미사 후(7시30분)
  7. 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8. 차주전례: 독서-①신영창 ②함문권
- 지난주 봉헌금: 270,500원    교무금: 170,500원

(휴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갑

1. 꾸리아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제 연례피정: 10일~14일
  3. 구역모임: 11일-진북2동 6구(14:00) 진북2동 5구(20:30), 서신4구(14:00), 13일-진북2동 7구(14:00), 어은골(20:30), 진북2동 9구(14:00), 14일-진북2동 10구(15:00), 서신5구(20:30), 진북2동 3구(20:30)
  4. 사도회 전체회의: 15일(20:00)  
대상-사도회 임원·구역 정·부회장·신심단체 임원
  5.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홍성조·김경주  
                  기도-노재두·유희자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정주복·이원길  
                  기도-김남곤·강삼
- 지난주 봉헌금: 163,230원    교무금: 375,150원  
군인주일 헌금: 114,870원

(전동)

신부 ②6208    주임 신부 김병익  
전화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3.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4. 성화회·피미시움: 다음주
  5. 사제피정: 10일~14일(부산)-많은 기도 바람  
본당 아침미사 없음, 오후 7시-말씀의 전례
  6.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 같음, 저녁미사 7시  
일요일은 7시30분
  7. 도서전지: 다음주(16일) 많은 관심 바람
  8. 예비자교리 금요일반: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최병래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태  
                  저녁미사: 해설-김석란,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645,600원    교무금: 443,0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축! 영세: 3일 80명, 축하합니다
  2. 신심단체에 가입합니다: 새로 영세하신 분들
  3. 로사리오의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10월에 준비바람
  4. 레지스 단원들: 새로 영세하신 분들 입단 권면 바람
  5. 재경분과 위원들(부·차장) 모임: 다음주  
84년도 예산 예비편성을 위해
  6. 200주년을 앞어 두고 새 사도임원 선출하지 않을 것  
을 본당신부로서(총재) 결정했습니다
  7. 84년도 각 분과 예산편성: 10월말까지
  8. 11월부터 14일까지는 본당에 미사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4,640원    교무금: 667,000원  
최요한 감사헌금: 10,000원    영세자 헌금: 65,310원  
영세자 기념품대: 45,000원